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읽기는 듣기·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그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잖이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①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행된다. 영·유아는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을 알게 된다.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흥내를 내는 것,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 거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A]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활 속에서, 책을 자주 읽어 주며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 ②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
- ③ 영·유아는 글자와 소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된다.
- ④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의 단계를 나눈다.
- ⑤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에 선행한다.

2. ⑦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책을 읽어 줄 때 들었던 구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② 책에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③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어 글자를 읽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④ 책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⑤ 책을 볼 때 부모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어 준 행동을 기억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읽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듣기·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A]와 달리 <보기>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를 강조하는군.
- ②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군.
- ③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군.
- ④ [A]와 <보기>는 모두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군.
- ⑤ [A]와 <보기>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④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⑤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A]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⑥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⑦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⑧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⑨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 ② 교통 이용 내역이 집적·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5. [A], [B]의 입장에서 ④~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입장에서, ④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⑨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⑩라면, ⑪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B]의 입장에서, ⑫가 ⑬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⑭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⑮에서 ⑯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⑰는 ⑱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국어 영역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같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같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권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 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7.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용이(容易)해져	근거(根據)하여	
② 유력(有力)해져	근거(根據)하여	
③ 용이(容易)해져	의탁(依託)하여	
④ 원활(圓滑)해져	의탁(依託)하여	
⑤ 유력(有力)해져	기초(基礎)하여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쟁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쟁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속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쟁 수 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주파수: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또는 전압의 (+)와 (-) 극이 1초 동안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되는 횟수.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압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 ④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 ②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 ③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④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 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 ② ㉠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 ③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 ④ ㉠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 ⑤ ㉠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은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둘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① 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⑦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직역 :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나)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 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土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①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②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은 같았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13.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 ② ㉠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 ④ ㉠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15.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흐드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 ㄴ.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 ㄷ.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 ㄹ.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염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ㄱ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 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염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17. ①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 ②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 ③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 ④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 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A]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 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다.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①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웁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 하나이다.”

하고 할머님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께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남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빈갑게 만나 사이다.”

정 씨 보기로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②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불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퇴되,

“③ 첨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국어 영역

“①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려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②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립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①~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②: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③: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④: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⑤: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일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챙 속 같은 마을. ⑦ 꼴까,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애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⑧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흘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⑨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⑩ 희끗희끗한 실낱이 서리위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⑪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었다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 '아슴풀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다)

④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⑤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漪)*'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운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전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어 영역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빨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⑧: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⑨: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⑩: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⑪: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①, ②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는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②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②가 동의한 이유는 ①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②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②가 ①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②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②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①가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은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동 5반의 반장으로 누구 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깔깔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①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웃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②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③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래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빼빼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벼려진 딸이다,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④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⑤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⑥ 이거, 또 시예요?”

“⑥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헬쑥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⑦ 이제 다 나았어요?”

“⑧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⑨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팬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⑩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⑪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 같아.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땀전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③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④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29.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는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②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③과 ④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⑤는 ④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⑥는 ⑤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⑦는 ⑥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영역

30.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끌끌거렸던 행위는 ‘그날’ 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하죽하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①~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①: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②: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③: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④: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⑤: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헌사할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폐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쳤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혜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곤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횡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불: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꽂꽝쌍쌍 박아 숭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굽으나 굽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퀘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근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민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홍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불’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A]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①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낚’은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뜻하는 ‘대낚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②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③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教生)’은 ‘교육(教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낚’과 ‘대낚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 ②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 ③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 ④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 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형성된 단어	뜻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 흰자	알 속의 노른자위를 둘러싼 흰 부분	흰자위
Ⓑ 공수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공격, 수비
Ⓒ 직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직접, 선거
Ⓓ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	민간, 투자
Ⓔ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국, 영화

- ① Ⓚ는 ⑦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② Ⓛ는 ⑦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 ③ Ⓜ는 ⑦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④ Ⓝ는 ⑦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⑤ Ⓞ는 ⑦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빗],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밟는[밤:는], 닭장[닭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벚꽃]

이를 참고하여 ①~⑤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①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②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③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④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⑤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①: 재밌는[재민는], 엉매는[엉매는]
- ② ②: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견닌력]
- ③ ③: 똑같이[똑까치], 파묻힌[파무친]
- ④ ④: 읊조려[읍조려], 겉늙어[건늘거]
- ⑤ ⑤: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벼]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능동·피동 표현과 주동·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a) 형이 동생을 업었다. (b)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c)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d)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먼저 ①, ②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①

선생님: 맞아요. 그럼 ③나 ④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②

선생님: ‘-(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①, ②, ③의 서술어에서 ‘-었-’을 ‘-고 있-’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①과 ②의 차이점이나 ①과 ③의 공통점을 말해 볼까요?

학생: ③

선생님: ‘-고 있-’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 ① ①: ①에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넣어야 하지만, ②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 ② ②: ③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③ ③: ④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④ ④: ①은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②는 그럴 수 없습니다.
- ⑤ ⑤: ①과 ③은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9.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①~⑤ 중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① 내히 이리 바르래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② 나랏 말쓰미 中國에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③ 生人의 소리 잇도소니 [생인(산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
 ④ 나흔 子息이 양지 端正호야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⑤ 내 널오리니 네 이대 드르라 [내가 이르리니 네가 잘 들어라]

<자료>

<보기>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내흐, 바흘, 나라흐, 말笞, 中國, 生人, 소리, 子息, 양즈, 나, 너
- 조사: 주격(이, 丨, Ø), 관형격(ㅅ, ㆁ), 부사격(애, 에)

- ① ①, ②, ③
 ② ②, ③, ④
 ③ ③, ④, ⑤
 ④ ④, ⑤, ⑥
 ⑤ ⑤, ⑥, ⑦

- [40~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겼다, 공약!’ 세 번째 시간 이죠.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①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네, ②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A] ③ 동주 맞아. 자리 맡고 오느라 종례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④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B] ⑤ 다예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⑥ 재호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C] ⑦ 현지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⑧ 연수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



진행자: 그럼 ④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⑤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예지 268명 읽음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댓글 창 열었으니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 나눠요.

99 댓글 [입력]

유선 2학년도 월요일에 쓰고 싶어요. 21:37

태민 나도. 21:51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두 번째 방송과의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 다에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 ③ [B]: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④ [C]: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였다.
- ⑤ [C]: 연수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방송에서 학생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일단 ㉠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절과 사용 원칙 마련에 ㉡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지. 또 ㉢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야지.

- ① ㉠: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 ②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 ③ ㉡: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43. ④~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어미 '-어서'를 사용하여,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어미 '-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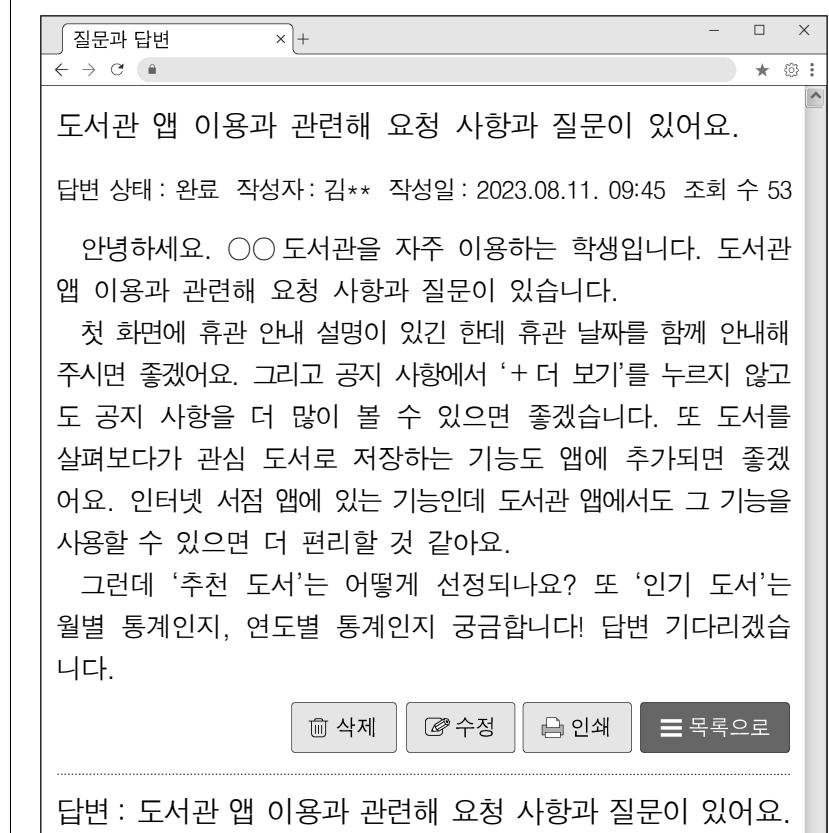
4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4~45] (가)는 ○○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⑤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변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